

구소련 고려인 소설의 인문지리 연구*

- 『십오만원 사건』과 『금각만』 중심으로 -

박안토니나**

|| 차례 ||

- I. 서론
- II. 문학지리학과 구소련 고려인 소설에 대한 기존 논의
- III. 구소련 고려인 소설이 갖는 문학지리적 특징
- IV. 결론

【국문초록】

한국문학의 한 유파로 주목받는 구소련 고려인 소설은 고려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 꿈과 열망이 담겨 있는 재외 한인 문학의 소중한 유산이다. 그동안 구소련 고려인 소설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본고는 구소련 고려인의 다양한 모습과 지역 공간을 문학적으로 표상하고 창조하고 있는 고려인 소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문학지리적 접근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구소련 고려인 소설을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문학지리를 탐구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인 동시에 문학지리적 사유 형식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범례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먼저, 인간주의 지리학 중에서 문학지리학(literary geography)의 차별성을 밝히고, 문학지리학이 갖는 위상을 간략히 정립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김준의 장편소설 『십오만원 사건』과 김기철의 중편소설 『금각만』에 반영된 한반도, 중국, 러시아

* 이 글은 2014년 11월 29일, 상명대학교(천안캠퍼스)에서 개최된 한민족어문학회 학술대회에서 발제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 타슈켄트 국립 니자미 사대 연구교수.

를 배경으로 이념적 심상지리 인식의 변화, 지각과 감정에 집중 그리고 의례행위에 관심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 고려인, 장편 소설, 문학지리학, 탐구, 지역성, 한민족, 3.1 운동, 사회주의, 항일투쟁, 민족사.

I. 서론

구소련에 거주하는 겨레들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소련 고려인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까지는 문학지리학적 관점의 연구가 크게 진전된 것 같지는 않다. 이제는 개별 작품에 대한 문학지리학적 시각의 독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아래 구소련 고려인 소설 중에서도 김준의 장편소설『십오만원 사건』과 김기철의 중편소설『금각만』을 다루어보려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문학지리학적 관점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앞서 살펴본 논의와 기존의 연구 방향을 토대로, 구소련 고려인 소설 중에 김준의 장편소설『십오만원 사건』과 김기철의 중편소설『금각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문학지리학과 구소련 고려인 소설에 대한 기존 논의

문학과 지리가 각각의 영역과 경계를 넘어 접속하면서 새로운 인문학¹⁾

의 대안적 담론을 모색하는 문학지리학(literary geography)은 지역성을 창조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을 갖는다.²⁾ 문학지리학적 접근은 공간적 인식을 담당하는 지리학과 인문학적 범주에 포함되는 문학 사이를 잇는 새로운 융합적 연구방법론이라는 여전히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³⁾

본래 문학은 늘 장소라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학 작품의 배경이든, 단순한 자연경관으로 등장하든 간에, 장소는 문학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적 부분 중의 하나가 된다는 점은 지극히 자명하다. 장소가 인간이 정주하여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한, 그것은 인간의 문학적 상상력을 구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소재가 되어 준다. 장소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고 삶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이거나 민족적인,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장소는 단지 지정학적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⁴⁾

1) 'P. Vidal de la Blache는 인문지리학 연구에서 이질적인 생물들이 공생 또는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군락을 이루거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복합적 환경(Milieu composite)을 구한 것이다.' P. Vidal de la Blache 지음; Emmanuel de Martonne 엮음; 최운식 옮김, 『인문지리학의 원리』, 교학연구사, 2002, p.17.

지역학 분야 중 문학지리학은 지리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장소'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문학을 이용한다.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문학지리학 연구는 네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나뉜다. 이는 다음과 같다: 1)문학 작품에 서술된 지리정보의 획득; 2)문학을 통한 장소의 간접 경험; 3)문학 속의 장소의 텍스트 해독; 4)기타 접근 방법이다. 김진영, 『인간주의 지리학 관점에서의 장소성 프로세스를 적용한 문학지리학 연구 : 소설『토지』속 평사리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p.12-17.

2) 황혜진, 「문학을 통한 인문지리적 사고력 교육의 가능성 탐색-평양을 배경으로 한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고전문학과 교육』제13집, 2007, pp.70-71.

3) 조동일, 「문학지리학을 위한 출발선상의 토론」, 『한국문학연구』 제2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4, pp.159-160.; 장석주, 『장소의 탄생』, 작가정신, 2006, pp.28-29.

위에 나타나는 요점은 지역 공간을 창조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삶과 특성인데 다시 말하자면 ‘심상지리’와 인간 ‘문화의 다양성’⁵⁾을 추구해야 하는 것과 장소와 공간, 인식, 풍속, 인물, 기후, 생태, 역사, 지역의 방언문화, 공동체의 체험 등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문학 상상력에 어떤 자양분을 공급하고 문학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도 관심을 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작가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복합적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그가 성장한 지역의 환경, 풍속, 역사 등등의 환경과 무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문화의 다양성, 지역적 특성, 작가를 포함한 복합적 환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문학지리학’이라는 것이다.

사람의 고향은 공간이고 지리인데 문학은 결국 심상에 자리 잡은 지리·공간이라는 것이다. 또 문학지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성찰인데 이 시대가 세계화, 지방화를 지향하니 도시문명 중심에서 지방, 자연, 환경 중심으로 가야한다. 문학지리학이 바로 이런 문화현상을 중앙에서 끌어 갈 생태사상 담론이라는 것이다.⁶⁾

소설에서는 섬세하게 배경묘사나 심리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성의 특성과 인간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소설 속에 재현되는 이 지역성의 특성은 허구적 세계의 정보라도 등장인물의 지역경험을 통해 지리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물론 소설 속 지역성이 과연 실제의 지역성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독자들은 소설에서 사상을 읽기보다는 그 사상을 담고 있는 삶을 읽으며, 이 과정

4)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근대 한국의 문학지리학』,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pp.18-19, 재인용.

5) 김태준 외,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 논형, 2005.

6) 오양호, 『인천학(仁川學)의 ‘문학지리학’적 접근: 『황해』, 『중국인 거리』, 『협계열차』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제17집, 2012, p.236.

에서 찾게 되는 것은 복잡한 과정으로 생산된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삶에 대한 진실이다.⁷⁾

다시 말하자면 소설 속 공간이 작가에 의해 변형되지만, 독자는 소설 속에 담겨진 지역성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동시의 삶의 보편적인 지역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문학 속에 지역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에 대해 투안(Tuan)의 관점을 들 수 있다. 투안은 공간과 장소를 환경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로 보고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 하는가’를 탐구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미지의 공간은 친밀한 장소로 바뀐다고 한다.⁸⁾

여기서 경험의 범주가 지각과 사유, 감정의 단계로 나뉜다. 이는 친밀한 장소 경험, 애착, 그리고 가시성을 통한 장소의 창조까지 구체적인 경험의 영역으로 발전된다. 인간의 경험은 지역성을 도출하는 근본적인 활동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복잡한 양상은 크게 지각과 감정, 애착 그리고 의례로 나뉜다.⁹⁾

다음으로 문학 속에 심상지리에 대한 관심을 들 수 있다. 문학에서의 심상지리 인식을 살펴보면, 장소가 인간의 행동양식을 결정하고 삶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평적 인식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탈식민주의¹⁰⁾적 비평양식이 도입되면서 활발해졌다.

7) 조재래, 『생존의 원리와 역사성 : 『토지』의 주제론』, 『현대문학의 연구』 제6집, 1996, pp.17-43.

8) Yi-Fu Tuan,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11, pp.6-7.

9) Yi-Fu Tuan, 최지원 역, 『문학과 지리학 : 지리학적 연구의 함의』, 『지역문화연구』 제5집, 1999, pp.140-143.

10) 서구 사회는 오리엔탈리즘의 ‘심상지리’를 매개삼아 내부의 ‘이질적인 것’과 연결된 오리엔탈(외부)의 표상을 생산해서 그것을 지배하고 관리해왔다. Edward W. Said,

근대 이후 로컬리티 위계의 탈구축과 심상지리의 형성의 과정이란 제국과 식민지의 체험으로부터 비롯한 지정학적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구축하고 공동체의 자기정체성을 정의하는 데에 반드시 거쳐야 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것은 근대적인 의미의 민족주의의 형성과정이기도 하다는 논의¹¹⁾가 개진되어 있다.

또한 심상지리 인식은 오래 전부터 폭넓게 자리 잡아 왔지만, 그것이 이념적인 의미에서 개인적이며 민족적이고 또한 더 넓게는 국가적인 정체성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¹²⁾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념적 심상지리 인식의 변화, 경험양식 중에서도 지각과 감정 그리고 의례행위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구소련 고려인 소설을 문학지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구소련 고려인 소설과 공간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를 간략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구소련 고려인 문학 속의 중국의 간도라는 지역은 주로 한민족의 항일투쟁을 위한 공간, 러시아 혁명 청송과 불세비키와의 협력을 위한 공간 혹은 사회주의 이념의 공간으로 이해 왔다. 특히 구소련 고려인 소설 속의 러시아의 연해주에 대해서 ‘집단주의의 삶을 꾸려 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친선’과 ‘협동’¹³⁾의 공간으로 논의한 이래로,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장소 혹은 제2의 고향이라는 공간으로 담론화되어 왔다.¹⁴⁾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4, pp.98-100.

11) 구인모, 「한국 근대사와 ‘조선’이라는 심상지리」, 『한국학연구』 제28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pp.84-85.

12) 임옥규, 「남북 역사소설의 심상지리적 인식을 통한 한반도 심상지도 구상방안 기초 연구」, 『통일인문학논총』 제 57집, 2014, p.370, 재인용.

13) 조재수, 「중국·소련 한인들의 한글 문예 작품론」, 『문학한글』 제4집, 1990, p.176.; 이명재, 『한국현대 민족문학사론』, 한국문화사, 2003.

구소련 고려인이 살았던 공간을 ‘공포와 불안이 숨어있고 ‘죄수’에서 ‘영웅’으로 만드는’ 심리적인 공간¹⁴⁾ 또는 농촌에 대하여 ‘장소 상실’¹⁶⁾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 공간성이 주로 살피졌다. 이러한 논의는 구소련 고려인 소설의 공간성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지만, 구소련 고려인 작가들이 그들 소설에서 보여준 지역이나 공간의 세세하고 다양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김준의 장편소설 『십오만원 사건』을 중심으로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진술자의 체험적 카테고리과 이를 근거로 한 작가의 작위적 상상력이 결합된 태생적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견해이다.¹⁷⁾

작가의 성격이 전통적 유교 의식과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결합·형성되는 점에 주목하는 것과 고려인의 표면적 의식¹⁸⁾ 그리고 항일투쟁 영웅¹⁹⁾, 정체성 확립²⁰⁾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민족의 투쟁정신을 표상하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삼아, 그것도 실

14) 장사선·김현주, 『CIS 고려인 디아스포라 소설 연구 : CIS지역 한국 관련 문예 자료의 발굴 조사 연구 II』, 『현대소설연구』제21집, 2004, pp.7-22.

장사선, 우정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연구』, 월인, 2005.

15) 강진구,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기억의 양상 연구-강제이주를 중심으로』, 『국제 한인문학연구』제1집, 2004, pp.330-366.

16) 강진구,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역사 복원 욕망 연구 : 김세일의 장편소설 『홍범도』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25집, 2004, pp.302-329.

17) 윤정현, 『중앙아시아 한인문학 연구 : 호주 한인문화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제10-1집, 2002, p.230.

18) 이명재 외,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 舊蘇聯圈 高麗人文學』, 한국문화사, 2004.

19) 장사선·김현주, 『CIS 고려인 디아스포라 소설 연구 : CIS지역 한국 관련 문예 자료의 발굴 조사 연구 II』, 『현대소설연구』제21집, 2004, p.12.

20) 임환모, 『중앙아시아 고려인 단편소설의 지형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57집, 2012, pp.74-76.

제 인물을 통해 취제한 내용을 장편소설로 창작, 발표하였음”²¹⁾은 역사적 사실을 서사화하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입장이 있다.²²⁾ 위의 언급된 다양한 관점들은 김준 문학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점에서 기반이 되지만 후속 연구의 여지를 많은 부분 남기고 있다.

한편, “김준의 『십오만원 사건』은 1920년대 초기 간도와 연해주 지역의 조선인들의 삶과 현실을 잘 그리고 있고 또 당시 항일 무장 세력의 투쟁 양상도 잘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역사적 사실이 달라져 있는 부분 적지 아니하다.”는 지적도²³⁾ 구소련 고려인 소설 속 사실에 대해 새롭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참고할 만하다.

김기철의 문학을 통해 그가 어떤 방식으로 소비에트 체제와 동화되고 또한 결별하였는가 하는 점을 밝혀, 구소련 사회에서의 고려인 작가의 생존 방식을 해명하는 연구도 있다.²⁴⁾ 이 연구는 김기철을 소개 연구하는 공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금각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남긴 것 또한 사실이다.

김기철의 작품을 소개하거나²⁵⁾ 그 창작시기를 유영화²⁶⁾의 방법으로 설명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구소련 고려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소설적 응전과 관련하여 김기철의 『북별』이라는 작품에 대한 언급한 논의가

21) 김필영, 『고려인 작가 김준의 『십오만원 사건』에 나타난 항일투쟁 시기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한민족문화연구』제29집, 2009, p.209.

22) 조정래, 『한국문학과 만주 체험 : 카자흐스탄 고려인 작가 김준의 장편소설 <십오만원 사건>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제39집, 2009, p.199.

23) 최병우, 『이념과 현실 그리고 사실의 변용 : 김준의 <십오만원 사건>의 경우』, 『한중인문학연구』제40집, 2013, p.3.

24) 강진구, 『구소련 고려인 문인의 존재 방식-김기철을 중심으로』, 『語文論集』第32輯, 2004, pp.197-228.

25)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 1937-1991』,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4.

26) 김종희,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0.

있다.²⁷⁾ 김기철의 문학세계를 연구하는 공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 반이 되지만 『금각만』과 관련 후속 연구의 여지를 많은 부분 남기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앞에서 언급된 연구자들의 견해를 참조함은 물론, 김준의 『십오만원 사건』²⁸⁾과 김기철의 『금각만』²⁹⁾에 반영된 이념적 심상지리 인 식의 변화, 지각과 감정 그리고 의례행위에 관심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Ⅲ. 구소련 고려인 소설이 갖는 문학지리적 특징

1. 인물을 통한 지역적 이미지의 확산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간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공간을 탐색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공간의 특성을 변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 고 표상체계를 모색하는 작업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지역 사이에 위치한

27) 임환모(2012), 앞의 논문, pp.76-80.

28) 김준(1900-1979)은 1931년 원동 해삼시 원동국립대학 노동학원을 졸업한 후 선봉 신문사에서 일하였다. 1933년 모스크바대학교 철학부에 입학하였으나 가정 형편으로 이듬해에 중퇴한 뒤 1936년까지 해삼시 뽀씨예트구역 《레닌의 길》신문사에서 근무하 였다. 1937년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뒤 《레닌기치》신문사에서 일했으며 1962년에 조 직된 카자흐스탄작가동맹 크즐오르다지부에 개설된 고려인작가분과의 분과위원장에 선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70년에 정식으로 설립된 카자흐스탄작가동맹 고려인작 가 분과 위원장 겸 콘술탄트로 선임되었다. 김필영(2009), 앞의 논문, p.208, 재인용.

29) 1907년 8월 8일 한남 단천에서 출생한 김기철은 연해주로 이주하여 연성통과 함께 북간도 용정 대성중학을 졸업하였다. 그후 하바로브스크의 변강 출판사에서 근무하던 중 조명회로부터 문학적 감회를 받는다. 가카흐스탄 작가동맹 산하 조직인 ‘작가 섹치 야’ 일원으로 참가하기도 한 그는 이른바 개방기를 맞아 ‘강제이주’를 형상화한 『이주 초해』(1990)를 발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91년 3월 알마타에서 사망한다. 강진구 (2004), 앞의 논문, p.198, 재인용.

조선의 지점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십오만원 사건』과 『금각만』 속에 ‘중국, 러시아, 조선’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형상화 되고, 심상지리로 인식되는가를 고찰할 것이다. 삶의 체험이 각기 다른 형태로 반응되는 두 작가의 소설 속 인물들을 통하여 지역적 이미지의 확산을 객관적으로 해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사회주의의 전파와 이념 표상

먼저, 『십오만원 사건』의 인물들은 실존인물들이며 작가는 인물들을 매개로 러시아, 중국에 대한 인식과 최봉설의 직접 경험을 통해 인식체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런 점은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아래 인용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³⁰⁾

조선 민족 해방 운동의 한 토막인 1919년 간도 십오만원 사건.

(중략) 솜에 있어서 이 사건 주모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때 적의 포위 중에서 요행 살아 나서 오늘날까지 생존하여 있는 최봉설(계립) 동무에게서 취재하였습니다. (중략)

『십오만원 사건』의 주동 인물들인 대담한 여섯사람(윤준희, 림국정, 최봉설 한상호, 박웅세, 김성일)에게 저자는 제일 큰 주목을 돌리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수십 명의 등장 인물들은 등한시 하였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김준, 『십오만원 사건』, 5-6면.

작가는 최봉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역사적 서사를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소설 속 최봉설 외 다양한 인물들과 저자는 만난 적도

30) 인용은 소설의 원문대로 수록했으며 원저자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인용한 것이다.

없었다. 하지만 작가는 다양한 상황을 각종 연상 작용을 통해 소설 속의 사건들을 하나의 허구적 이야기로 만들어 낸다.

한편, 『금각만』의 주인공인 만수에 대해서는 작가는 그가 실존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작품 서두에서는 작가가 주인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해삼시 신한촌 하바롭쓰까야거리의 한 오막살이에는 박만수라는 지계군이 살고 있었다. 정처 없이 손님 가자는대로 가는 그의 하루길은 매양 친구시 가지로 내려가는 거리 첫머리 세걸어름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김기철, 『금각만』, 72면.

주인공 ‘박만수의 본성명은 김창수(77)’이다. 만수가 46세 때, 어머니에게 폭력을 쓴 일본 순사를 죽이고 면배를 타고 연해주에 오게 된다. 그리고 연해주에서는 자신의 ‘성명과 고향(80)’을 고쳐 자신을 박만수라고 소개한다.

김준과 김기철이 소설에 쏟은 정열은 소설을 통해 한반도의 현대사뿐만 아니라 고려인 동포들의 역사와 문학사를 실재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큰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독립운동사의 배경,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해방 전 이데올로기의 갈등 등이 소설의 문학적 상상력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간도와 연해주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조선을 오가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특징이 구현되는 점을 볼 수 있다. 특히 『십오만원 사건』이 창작한 시기는 1955년 초부터 1960년 말까지인데 당시 고려인 작가들은 소련의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의 한 전범이라 할 수 있다. 1917년 10월 혁명 전 후까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 공산당원으로 활동하는 모습들 등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 빨치산 군대를 따로 편정해 러시아 군대와 연합시키는 것’과 조선인들은 위한 사관학교를 세워 ‘러시아어를 배우는 것’, ‘러시아식 조련도 배우는 것’도 사회주의적 사상을 다루는 것이다. 한편, ‘1919년 3월 12일! 용정 시 동면 교외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새벽부터(89)’ 모여,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것과 ‘용정 일본 은행 돈을 탈취하는 것’은 소련 정권 하에서 한민족사에 대한 복원을 문제 삼는 민족 역사 소설의 한 전범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와 맞물려 한반도 역사의 한 시대를 고려인 동포의 심상공간에 뚜렷이 문제 삼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인들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면서 조선과 중국에 왕래 하는 것에 대해 작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러시아 1차 대전 때 러시아의 ‘중국인과 조선인을 전선’ 노동자 고용(84), ‘대한 독립 만세’운동, ‘공산주의를 전선(85)’등이다. 『십오만원 사건』에 경우 일제 억압 때문에 일본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강화되고 러시아, 중국행 유학 등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 조선인들은 러시아와 중국에 관한 지식의 폭을 넓혀간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하에서 외국에 대한 체험을 통해 인식에 변화를 보이는 인물을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경우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두 소설에서는 환경의 변모와 심리구조를 변모시키고, 그 변화가 정신적 심상지리공간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물들을 보면 고향을 떠나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항일투쟁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반면, 러시아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하거나 밥벌이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김기철은 김준과 달리 한남 단천에서 태어났지만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다. 하지만 김기철도 『금각만』에서 러시아 연해주에서 조선인들의 항일

투쟁과 중국에서의 조선인들의 생활에 대해 언급하면서 항일투쟁에 당당히 참여했던 인물들을 부각시킨다. 『금각만』에서 『십오만원 사건』과 달리 빨치산에 대해 언급이 된다. 김기철은 사회주의자들의 도움으로 교육제도를 제공받는 학생들을 그리며, 그들이 러시아 사회주의 이념을 경험하는 모습을 반영한다. 러시아 사회주의 이념을 수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정신적 교육으로도 조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가들은 러시아의 표상인 사회주의 이념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금각만』은 주인공 박만수를 통해 일본의 식민성을 비판한다.

타향살이의 설움이 북바치며 지독한 고독감이 정신을 사로잡았다. 그럴수록 만수는 자기로 하여금 정든 고향, 사랑하는 어머니와 처자를 버리고 강동의 고생살이를 떠나게 한 왜놈들이 더없이 가증하고 저주로웠다. 김기철, 『금각만』, 77면.

사실 만수는 뜻하지 않은 돌발적 사건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에 혼자 도주를 했고 일본왜놈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 ‘돈을 벌어 집이나 사고(80)’ 한반도에 남은 식구들을 데려오려고 했지만 이곳 연해주에서도 ‘왜놈들만 못지않은 짜리경관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80).’

만수가 러시아 조선인 마을인 신한촌에 생활하면서, 박노인, 순탄어미, 분녀, 신동걸, 김영호, 이정림등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두 작품의 인물 중 목적을 가지고 조선을 떠난 조선인들이 있었다는 반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을 떠나 1937년에 고향과 더 먼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인물들도 포함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든 중국이든 조선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왜놈들’이고

강제 이주를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간첩’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구소련 고려인 작가들은 일제를 자신의 ‘왜놈’으로 규정하고 당시에 조선인들이 어떤 투쟁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 역사적인 서사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한편 이념적 표출과 함께 김준과 김기철 소설 속에 러시아와 중국 문화가 표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지리적 거리를 내포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공간들에 대한 상상작용은 러시아, 중국, 한반도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드러내며, 이 문화들 속에서 인물들은 주체성의 감각을 끌어낸다. 인물들이 그들의 시선을 통해서 당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대변한다. 김준과 김기철은 소설을 통해 상이한 문화를 표상함으로써 민족과 문화의 지리적 분리에 기초했던 역사적 경험을 다시 생각하고 재구조화 한다. 두 소설 속에 표상된 러시아와 중국은 조선과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일제 억압의 문제를 상기시키고 있다.

소련 정권 하에 있으면서 한글 작품창작에 심취했던 김준과 김기철의 소설 속에서 사회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장면들도 있다. 그러나 이 두 작가의 소설 곳곳에 ‘사회주의’가 아닌 ‘조선’ 그 자체의 위치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소련 국민으로서 한글로 창작 활동을 한 고려인 출신 이들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중간자’³¹⁾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학에서 이와 같은 이질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러시아와 중국 생활 체험을 통한 이념 전유

두 작품에서 러시아의 지역성을 더욱 더 뚜렷하게 형상화하는 요소로는 ‘철도’와 ‘열차’를 등장시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소련 고려인 소설 속에

31) 바트 무어-길버트, 이경원 옮김,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한길사, 2003, p.314.

등장하는 철도와 열차는 고려인 문학과 역사의 무대이자 소재이다. 특히 한진의 『공포』에 나타나는 철도는 강제이주의 기억을 그려내는 저항의 상징으로 형상화된다. 반면 『십오만원 사건』과 『금각만』의 경우 철도는 고려인의 심상공간에 대한 기억에서 러시아와 중국 생활 체험을 통한 이념의 표상이다.

항일투쟁 때문에 겪었던 많은 어려움이 여기서는 꿈과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지역으로 치환된다. 결사대를 조직하여 시위 행렬에 참여하여 많은 희생자를 내지만 젊은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실제로 러시아 연해주에 조선인 인구가 급성장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가 많은 노동력을 필요했기 때문이다. 노동과 돈벌이 때문에 많은 조선사람들이 연해주로 이주하여 노동자가 되었다. 즉, 김준 소설에 나타난 노동 체험이 노동체험 뿐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이념과 사상을 습득하는 중에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이들은 조선에 왕래하면서 근대화 과정에서 계몽에 앞장선다.

아래 인용문을 보면 소설의 어떤 맥락 속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거론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1919년 3월 5일. 해질 무렵. 한 청년이 와룡동으로 들어 가는 길을 걷고 있었다. 매우 낡은 로씨야 군인 외투(시넬리)를 입고 털이 다스려 군데 군데 가죽이 반질반질한 로씨야식 방한모를 쓰고 지논한, 역시 낡은 로씨야 군인 장화를 신었다.(중략)

그 때에 해삼에 가서 인차 전쟁 판 로동자로 고용되었다. 화차에 앉아서 근 한 달이나 씨비리 삼림과 광야를 지나 우랄산을 넘어 빠림 근방 어느 목재 소에 가서 처음에는 나무를 베다. 다음에는 쇳돌을 녹이는 공장에서 로동했고

또 그 다음에는 강때 굶으로 200리나 되는 곳에 가서 대포철을 만드는 공장에
서 일했다. 이렇게 돈벌이는 커녕 입살이도 되나 마나 했다. 그래서 노동자들
은 제 집으로 돌아 가려고 애를 썼으나 공장 당국에서 나와 주지를 았았다.
김준, 『십오만원 사건』, 66-67면.

많은 조선인 청년들이 러시아에 오기 시작했다. ‘목재소, 철공장, 대포철
공장’은 지역의 변화와 연결된 맥락에서 러시아가 등장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러시아가 소설의 서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 있게 등장하는 것이라고 할 터이다.

당시 10월 혁명 무렵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을 통해 한민족사의
단면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돈벌이’의 꿈을 이루기 위해 러시
아 열차를 탄 임국정이 중국에 계신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러시아에 가서 비록 ‘돈벌이’는 안 됐지만 임국정에게는 꿈이 생긴다. 그것
은 러시아가 ‘농민의 나라’가 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 주고 조선도
러시아처럼 ‘무산 계급’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설에서 철도와 열차는 림국정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독립만세와 함께
‘무산 계급’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꿈을 주고 있다. ‘무산 계급’에 대한 사회
주의 사상성에 따라 ‘유토피아’ 지향성을 보인다. 즉, 조선은 러시아에 비해
가난하고, 낡은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작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선에서 온 숙경을 통해 러시아의 심상공
간을 특성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①- 독립을 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해삼에 가서 간호부들을 양성해야 독
립을 하지 않겠습니까. 장차 잘 될 길을 가자는데 그리도 몰라봐 주십니까(숙
경이는 애타게 울었다).

- 자식이 잘 되는 거 좋아 하지않는 부모 어디 있다더냐? -하고 어머니도

울었다. -정영 가야 된다니 그러문 나도 따라 해삼으로 가겠다. 따라 가서 너희들을 음식도 지어 주고 의복도 씻어 입히겠다...제 새기들 낳아 부모의 정을 아느니라. 김준, 『십오만원 사건』, 174면.

②저 안면에서는 쏘비에트정권이 완전히 승리하고 원동에서도 아무르강이 남 철도연선만 전대로 남아있습니다. 백파들이 멸망하고 왜놈들이 쫓겨갈 날도 멀지 않습니다. 김기철, 『금각만』, 108면.

①에서는 독립만세를 위한 몸부림, 그리고 꼭 혈세 맹세를 한 숙경과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독립을 위해서 간호부를 양성하는 것이 숙경의 꿈이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협력자도 이미 있다. 그것은 숙경의 사랑하는 사람 임국정과 그의 어머니이다. 이제 조선인 젊은이들의 심상에 자리 잡힌 러시아의 모습은 조선의 독립과 연결되어 있다.

②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일투쟁을 했던 신동걸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의 꿈을 이루지만 귀향을 하지 않고 러시아혁명가가 된다.

① 울창한 살림, 부드러운 눈길, 눈부시게 밝은 태양, 시원한 공기, 간호부란 심정, 로씨야 - 이것은 처녀들(처녀들 뿐만 아니다) 이 일찍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새 세상이다. 이 세상에서는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무엇이 완전히 들리고 보인다. 김준, 『십오만원 사건』, 205면.

② 국자가 - 훈춘 - 모커우 - 해삼. 이것을 목표로 한 처녀는 천천히 발을 옮겨 놓는다. 동천에 붉은 해가 떠올랐다. 이 햇살과 추위에 숙경의 얼굴도 벗어난 빛을 띠었다. 불 먼 나라를 상상하면서 걷는 그는 맞우오는 쌀쌀한 복풍을 가슴 수북히 들여견다. 몸과 마음을 시원히 깨고 건어 가는 이 바람은 숙경이로 하여금 생 호라동의 희망과 힘을 느끼게 하였다. 김준, 『십오만원 사건』, 342면.

①에서 보면, 투쟁과 저항이 있는 공간인 반면 러시아의 또 다른 모습이

다. 러시아는 일종의 황상의 나라이다.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 세상’의 러시아는 지역성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아무르강과 같은 슬픔·고통이 있는 강과는 먼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곳이다.

②에서는 간호부 양성의 꿈을 이룬 숙경은 러시아에서는 계속적으로 다른 꿈을 이루기 위해 ‘총을 잡은’ 국자가로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 작품에서 러시아의 넓은 땅, 추운 날씨, 밝은 태양과 시원한 공기가 불고 있는 한 조선 처녀상을 통해 러시아의 심상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 운동을 위해 조선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러시아에 온 한 조선인 처녀는 총을 잡은 국자가 되는 예이다. 숙경과 같은 여성들은 항일투쟁 때문에 러시아로 향했지만, 조선으로 귀향을 포기한다. 이렇게 볼 때 김준 소설에 나타난 ‘총’은 러시아 이념의 표상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중국은 조선과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독립운동뿐만이 아니라 당시 조선인들이 정착한 곳이자, 조선과 러시아로 자유롭게 오가는 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중요한 지역이다. 이 두 소설들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제외하고 중국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구소련 고려인 문학의 소재가 될 만큼 문학적 전통이 강한 지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중국이 이렇게 소설에 등장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민족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애정과 기쁨의 공간인 중국은 『금각만』에서도 묘사된다. 중국은 만수가 러시아 연해주에 도주한 뒤에 그의 아내와 아들이 이주한 곳이다. 그의 아들 김룡암은 중국에서 명동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랑하는 림영란과 약혼을 한 애정의 공간이면서 그의 아내와 아들이 죽은 공간이다.

만수의 아들인 통암과 그의 약혼녀인 영란에게 있어 중국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는 공간이다. 중국은 영란에게 러시아에 가기 전에 ‘우선’ 경험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데에서, 러시아라는 공간이 가진 이상주의적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2. 자연 환경에 대한 지각과 감정 표출

여기서는 『십오만원 사건』과 『금각만』의 등장인물들이 자연 환경을 느끼고 이에 빚대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러시아, 중국 그리고 조선과 관련된 환경에 대해 서술한 소설 속 장면들을 살펴 보면서 지각과 감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자유의 표상인 두만강의 양면성

『십오만원 사건』과 『금각만』에서는 두만강에 대한 지각과 감정이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두만강은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자유와 희망의 표상을 상징하고 있었다.

조선 함흥에서 출발한 숙경은 간도에 살았던 사랑하는 국정을 만나기 위해 두만(해란)강을 건너 중국 용정으로 오게 된다. 두만(해란)강에 대한 숙경의 지각과 감정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아래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해란강은 간도에 깃드린 백의 동포들이 씻는 땀과 눈물을 실어다가, 실어다가 두만강에 넣어주는 두만강의 한 줄기란다. 김준, 『십오만원 사건』, 29면.

작가는 해란(두만)강을 묘사하면서 역시 두만강이 아니라면 중국에 가

는 것도 만세운동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듯이 서술하고 있다. 두만(해란)강을 본 속경은 조선인들의 ‘땀과 눈물’을 연상하면서 한편, 사랑하는 국정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을 품는다. 두만(해란)강은 이 작품의 주요 인물을 구성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해란강! (중략) 여름이면 목욕하고 조약돌 강변에서 이리저리 번져 누우면서 햇볕을 쬔우던 해란강! 그러나 오늘 밤에는 얼음 조각을 수북히 품고 흐르며 랭정하듯이 맞아 줘도 반가운 해란강. 기어코 건너야 할 이 해란강. 건너가다가 죽어도 안기워야 할 다정한 이 해란강. 김준, 『십오만원 사건』, 157면.

중국과 두만(해란)강은 한민족의 역사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공간이다. 독립을 위한 인물들의 감정을 작가는 ‘얼음’과 ‘냉정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독립 운동을 위해 일본은행에서 탈취한 돈을 들고 차가운 물을 건널 때 ‘꺼꾸러지면 돈을 잃는다(158).’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통해 인물들의 지각과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름에 강에서의 환경을 느끼면서 목욕할 때 강물은 생동감을 주고, 겨울에는 얼었지만 다정하게 만 느껴진다. 등장인물들의 감정상태가 냉정한 얼음으로 표현된 것이다.

『금각만』에서는 두만강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지각과 감정을 만수의 예로 살펴 볼 수 있다.

국경 저편을 바라보니 모두가 눈에 익다. 경원군 미미령은 거연히 버티고 서서 위용을 자랑하고 두만강은 이면에서 은따로 굽이굽이 감돌아 동해로 흘러간다. 두만강건너가 조선땅. 김기철, 『금각만』, 122면.

만수의 경우, 두만강을 건넜지만 두만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움

과 애환을 표출한다. 주인공 만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남겨두고 두만강을 건너왔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 아내와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 두만강을 본 만수는 고향을 연상시켜 조선에 가고 싶어 한다.

두만강을 볼 때 등장인물들의 감정 상태와 두만강의 상태와 연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타향의 처함과 고향으로 회귀

구소련 고려인 소설 중에 두만강을 반영한 작품이 많지만 서울의 한강이나 남산 또는 서대문과 관련된 자세한 묘사를 하는 작품은 거의 없다. 하지만 『십오만원 사건』과 『금각만』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뿐 아니라 한반도를 지리적 공간으로 내세우는 점도 시사점을 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험의 양식 중에 의례행위가 언급한 바가 있다. 여기서는 이 두 작품 속에 반영된 대표적인 의례는 장례식이다.

먼저, 『십오만원 사건』 속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장례 행렬이 서울 공동 묘지로 향하여 간다.(중략) 조선의 빛인 흰 옷을 누구나 다 입고 나선 이 장례식 행렬은 조선의 아들 셋을 조상하는 사람들의 상복 같다. 엄숙하게도 말 없는 이 백의인들의 행렬은 움직일 수록 붙어 간다. 혹은 넓어도 지고 혹은 좁아도 지며 흐르는 흰 옷 무리 속에서 한 가지 말이 소사 오르곤 한다. “이 조선, 저 원쑤.” 김준, 『십오만원 사건』, 290-291면.

서울은 러시아의 연해주와 달리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관점으로 설명되지 않는 희망과 용기가 있는 공간이 된다. 조선에서는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공산주의를 찬송하는 의도는 구현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히려 조선

은 ‘조선의 빛인 흰 옷’을 입고 엄숙한 사람들의 행렬과 ‘산 사람들의 결심과 돌진(291)’이 있는 공간으로 서술된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선을 떠나 투쟁을 했지만 고향으로 회귀는 장례식으로 끝난다. 조선을 떠난 많은 젊은이들의 고향은 이들 ‘무덤’의 공간으로 맞이했다.

묘지. 세 무덤을 또 판다. 스물 하나를 파던 것 보다는 아주 다르다.

그 스물 하나는 멀리서 독립을 불러 보던 사람들의 무덤이다. 이 셋은 독립을 가깝게 하는 무덤이다.(중략)

조선의 수도 서울에도 새 무덤, 이전에 없던 무덤 세 개 생겨 났다. 김준, 『십오만원 사건』, 291면.

슬픔과 고독의 감성은 무덤이라는 장소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무덤은 ‘멀리서 독립을 불러 보던’, ‘독립을 가깝게’하는 것과 관련된다. 서울의 무덤은 소설 속 이 세 등장인물이 묻힌 곳 그리고 수많은 조선 젊은이들이 있는 곳, 슬픔과 고독의 감성을 자아내는 장소인 것이다.

서울이라는 지역 또는 공간은 주인공 최봉설의 동지들이 죽고 그가 남은 평생 돌아갈 수 없었던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다. 이처럼 개인사를 참조할 때에 문학 속의 지역성은 역사적 차별화의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항일투쟁을 한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많은 무리가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점은 독립만세를 외치는 조선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당시 장례식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조선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유대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김준의 장편소설 『십오만원 사건』과 김기철의 『금각만』을 대상으로 삼고 문학지리학의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이념적 심상지리 인식의 변화, 지각과 감정에 집중 그리고 의례 행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

첫째, 두 작품 속 인물들은 환경의 변모와 심리구조를 변모시키고, 그 변화가 정신적 심상지리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들은 러시아의 표상인 사회주의 이념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고 일본의 식민지를 비판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등장인물들이 자연 환경을 느끼고 이에 빚대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러시아, 중국 그리고 조선과 관련된 환경에 대해 서술한 소설 속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지각과 감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경험 양식 중에 의례행위인 장례식에 대한 서술과 묘사를 통해 장례식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조선인들은 정신적으로 유대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문학지리학적 관점에서의 구소련 고려인 소설의 연구는 완벽한 연구방법론이 아니다. 시도 단계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문학지리학적 관점에서의 구소련 고려인 소설의 활발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 준, 『십오만원 사건』, 카사흐국영문학예술출판사, 1964.

김기철, 『붉은 별이 보이던 때』, 사수쇄 출판사, 1987.

2. 논문 및 단행본

강진구,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역사 복원 욕망 연구 : 김세일의 장편소설 『홍범도』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25집, 2004.

김진영, 『인간주의 지리학 관점에서의 장소성 프로세스를 적용한 문학지리학 연구 : 소설 『토지』속 평사리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필영, 『고려인 작가 김준의 『십오만원 사건』에 나타난 항일투쟁 시기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한민족문화연구』 제29집, 2009.

오양호, 『인천학(仁川學)의 ‘문학지리학’적 접근 : 『황해』, 『중국인 거리』, 『협궐열차』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제17집, 2012.

윤정현, 『중앙아시아 한인문학 연구 : 호주 한인문학과 대미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10-1집, 2002.

이명재 외,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 舊蘇聯圈 高麗人文學』, 한국문화사, 2004.

이명재, 『한국현대 민족문학사론』, 한국문화사, 2003.

이정선 · 임형모 · 우정권 지음, 『고려인문학』 제1권, 청동거울, 2013.

장사선, 김현주, 『CIS 고려인 디아스포라 소설 연구 : CIS지역 한국 관련 문예 자료의 발굴 조사 연구 II』, 『현대소설연구』 제21집, 2004.

장사선 · 우정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연구』, 월인, 2005.

장석주, 『장소의 탄생』, 작가정신, 2006.

조동일, 『문학지리학을 위한 출발선상의 토론』, 『한국문학연구』 제2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4.

조재수, 『중국 · 소련 한인들의 한글 문예 작품론』, 『문학한글』 제4집, 1990.

조정래, 『생존의 원리와 역사성 : 『토지』의 주제론』, 『현대문학의 연구』 제6집, 1996.

_____, 『한국문학과 만주 체험 : 카자흐스탄 고려인 작가 김준의 장편소설 <십오만원 사건>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39집, 2009.

- 최병우, 『이념과 현실 그리고 사실의 변용 : 김준의 <십오만원 사건>의 경우』, 『한중 인문학연구』제40집, 2013.
- 황혜진, 『문학을 통한 인문지리적 사고력 교육의 가능성 탐색 - 평양을 배경으로 한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고전문학과 교육』제13집, 2007.
- Edward W. Said,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4.
- P. Vidal de la Blache, Emmanuel de Martonne 엮음, 최운식 옮김, 『인문지리학의 원리』, 교학연구사, 2002.
- Yi-Fu Tuan, 구동희 · 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11.
- _____, 최지원 역, 『문학과 지리학 : 지리학적 연구의 함의』, 『지역문학연구』 제5집, 1999.

Abstract

A Study on Literary Geography in Goryeoin Novel
of the Soviet Union

- Focused on "The Incident of 150,000 Won"

by Kim, Jun and "Golden Horn Bay" by Kim, Ki-chul -

Pak, Antonina

Goryeoin literature, which draws attention as a sect of Korean literature, is a precious heritage of overseas Korean literature that holds multiple aspects of life, dream, and aspiration of Goryeoin. Research approach to the characteristics of Goryeoin literature has developed diversely.

This paper is devoted to research on an possibility of literary-geographical approach with focus on the novel "The Incident of 150,000 Won" by Kim, Jun, and the medium-length story "Golden Horn Bay" by Kim, Ki-chul that describe various aspects of Goryeoin in Central Asia, and creat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a way of literally representing the geographical space, for the two works are considered as the useful reference source to research on literary geography as well as an exemplificative model for reasoning pattern of literary geography.

Here I clarify the distinctiveness of literary geography from other parts of humanistic geography, and briefly define the status of literary geography. Furthermore, I depi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maginative space of literary geography, and cultural diversity that are represented on the setting of Korean Peninsular, China, and Russia.

Key Word : Goryeoin, Novel, Literary Geography, Research, Regional Characteristics, Korean People, 3.1 Independence Movement, Socialism, Anti-Japanese Struggle, National History.

박안토니나

소속 : 타슈켄트 국립 니자미 사범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연구 교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박사과정 수료)

주소 : (122-844)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215-37번지 402호

전화번호 : 010-7556-5465

전자우편 : uztonya@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5년 3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0일 게재 확정됨.

